



## 민경숙

1

병원에서 퇴원한 혁이가 참지 못하고 학교운동장에 달려간것은 한낮이 펍 기울어서였습니다.

훈련에 한창 열이 올라있던 혁이네 축구학급동무들이 반기며 달려와 저마다 그 애를 껴안았습니다.

《언제 퇴원했니? 수술자린 일없니?》

《너 다리가 근질거려 어떻게 참았니?》

《체, 퇴원하자바람에 운동복차림으로 달려온것만 보렴.》

겨끔내기로 떠들어대는 애들속에서 진명이 청높은 소리로 물었습니다.

《혁이야, 너 병원에서 새집에 오고파 안달이 났겠구나.》

《말두 말아. 밤마다 병원창가에서 불장식이 번쩍번쩍하는 우리 집만 바라보군 했어.》

혁이가 그렇게 말할만도 했습니다. 창전거리 새집에 이사한지 사흘도 못되어 급성중수염으로 병원에 입원했던 혁이였습니다. 그래 아까 퇴원해와서도 몇번이나 방안을 돌았는지 모릅니다. 오죽했으면 소학교에 다니는 동생 남이까지도 《형, 벌써 일곱번째야.》하고 썸세기를 다 했겠습니까.

혁이의 말에 아이들은 새집이야기로 꽃을 피웠습니다. 이야기는 어느덧 앞으로 진행되는 경기들에 자기들은 창전거리의 명예를 걸고 나가게 된다는데로 이어졌습니다.

경상동에서 살던 애들이 다 창전거리 새살림집에 들었으니 당당히 가슴을 내밀만도

하였습니다.

《옳아. 이거 점점 어깨가 무거워지는 데.》

《우리 기어이 우승하자! 그래서 창전거리에서 사는 자랑을 빗내이자!》

빙 둘러섰던 아이들은 금방 경기에 출전하기라도 하듯 어깨들을 결으며 《야!》하고 담찬 소리를 합치었습니다.

이어 운동장에서는 공을 몰아가는 아이들의 달음박질소리, 호각소리가 그칠새없이 울렸습니다.

혁이는 한옆에 있는 나지막한 평행봉우에 걸터앉았습니다. 마음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운동장에 뛰어들고싶었으나 갖 수술을 받은 몸이라 애들의 훈련모습을 지켜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현듯 혁이의 입에서 가느다란 한숨이 흘러나왔습니다.

(호- 창전거리에서 사는 자랑을 펼치자구?... 그게 말처럼 쉽다면 얼마나 좋을가.)

이제 몇달후에 시적으로 중학부문 축구경기가 진행되게 됩니다. 종전처럼 낮은학년과 높은학년 두 부류로 나누어 하게 되었는데 학교 낮은학년에서는 2학년인 혁이네 축구학급을 기본으로 팀을 구성하여 경기에 나가게 되어있습니다.

혁이의 눈앞에는 얼마전에 있는 과외체육학교 애들과의 경기장면이 텔레비존의 화면처럼 펼쳐졌습니다. 정확한 공편략, 순간속도에 있어서 혁이네와 대비도 되지 않는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중앙공격수인 자기까지 급성중수염수술을 받고

이 꿈이 되었으니...

(에익, 안되겠어. 우린 기술적으로 아직 어려. 그런것도 모르고 저들끼리 제일인체 했으니...)

9월의 문어구에 들어서기 바쁘게 제법 가을맛을 내는 선들바람이 불어옵니다. 건드러지게 술렁대는 키높은 백양나무에서 왜 벌써 초들초들 말라버렸는지 모를 일새 하나가 혁이의 무릎우에 떨어져내렸습니다. 마치도 축구마당에 뛰어들지 못하고 한구석에 밀려난 자기 신세같아 혁이는 얼른 손으로 툭 쳐버렸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학교의 창문들에 석양의 노을빛이 곱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과외체육학교에 가셨다던 선생님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혁이는 문득 안절부절하고있을 남이생각이 났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자바람에 어머니한테서 형이 어디 나다니지 못하게 단단히 통제할데 대한 《임무》를 받은 남이였습니다. 형이 문밖에 나설 기미만 보여도 즉시 어머니한테 전화로 알리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나 남이는 형의 마음을 너무도 잘 알고있기에 딱 한시간만 눈을 감아주기로 한것입니다.

《형,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알지?》

《알았다니까.》

그런데 어느결에 저녁이 되어오고있었습니다.

《뽕뽕-》

유난스러운 승용차의 경적소리가 운동장을 울렸습니다. 운동장이 좁다하게 휘돌던 아이들이 일시에 정문쪽을 바라봅니다.

축백나무가 쌍보초를 서고있는 정문으로 까만 승용차 한대가 들어서고있었습니다.

혁이의 눈길도 호기심에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그러던 그의 눈이 딱 굳어졌습니다. 차가 벗어나자 조그마한 애가 흘랑 뛰어나려던것입니다.

(아니?...)

깜짝 놀란 혁이는 혹시 잘못 보지 않았는가 해서 눈시울을 연신 슴뻑거렸습니다. 분명 동생 남이였습니다. 금방까지도 이 형때문에 안절부절하고있으리라 여겼던 남이가 난데없이 승용차를 타고 나타나다니...

남이는 애들의 놀란 시선을 꺾지르며 이쪽으로 곧추 달려오고있었습니다.

《형!》

남이는 와락 혁이의 두팔에 매달렸습니다. 숨을 가빠 내쉬며 붕어처럼 입만 벌

거리다가 가까스로 말을 이었습니다.

《형, 우리 집에... 우리 집에... 원수님께서 오셨어!》

《?》

혁이는 병병해서 자기보다 머리 하나는 실히 작은 남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애가 혹시 잠에 들었다가 꿈이라도...)

그런데 저 승용차는?...

다음순간 혁이의 가슴이 널뛰듯 쿵쿵 뛰었습니다. 남이의 뒤에 서있는 구역당책임 비서를 알아보았던것입니다.

《혁이야, 어서 가자! 창전거리 새집에 이사한 가정들을 돌아보시려 나오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지금 너의 집에 와계신다. 아버지,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시다가 네가 학교에 갔다는걸 아시고는 시간이 좀 지체되더라도 너를 만나보고 가자고 하셨단다.》

순간 《야!》하는 환성이 어스름이 내려앉는 운동장을 들었다놓았습니다.

《히야, 이거 꿈이 아니야?》

《혁이야, 너 듣니? 원수님께서 널 기다리고계신대.》

부러움에 찬 목멘 소리들이 굳어졌던 혁이를 흔들어깨우는듯...

혁이의 두눈에 뜨거운 눈물이 츤렁츤렁 차올랐습니다.

(원수님께서 나를 기다리시다니... 창전거리 그 많은 집들가운데 어떻게 우리 집을... 어떻게 날...)

## 2

혁이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크고 따뜻한 손에 볼을 꼭 대고 원수님을 우러렸습니다. 이게 정말 꿈은 아닐까? 날마다 텔레비존에서 뵈곤 하던 원수님께서 이렇게 평범한 로동자의 가정인 우리 집을 찾으신것이... 정말 나에게 하신 말씀일가? 집안의 말이 왜 이리 늦었느냐고 걱정담아 다심히 물으시던 그 음성이...

그게 정녕 꿈이 아니라는듯 원수님의 우렁우렁하시면서도 부드러운 음성이 방안을 울렸습니다.

《혁이가 열두살나이에 비해 키가 크고 하체도 미끈한게 축구선수로서 육체적준비는 나무랄데 없는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들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중학교에 올라오며 축구학급에 뽑혔습니다. 그때부터 축구라면 오금을 못씁니다. 당장 이

름난 선수가 되기라도 하듯이 들떠가지고서는...》

아버지의 어쭙은 대답이었습니다.

그러자 원수님께서는 《허, 그러니 내가 오늘 창전거리 새집구경을 왔다가 앞날의 유명한 축구선수와 상봉한셈이구만.》 하시며 사내답게 눈망울이 시커멓고 별에 타서 검실검실해진 혁이의 얼굴을 대견히 굽어보시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말씀도 듣지 않고 마음대로 나다니는 잘못했다. 혼련하는 동무들이랑 선생님이 보고싶어 학교부터 달려간네 마음은 리해되지만 수술자리가 잘 아물지 않으면 어쩐다?》

혁이는 멧적게 앞이마를 굽적거렸습니다.

형을 지켜보던 남이가 속이 썩겨나는지 원수님의 다른 한팔에 매달렸습니다.

《그건 형이 동무들이랑 막 보고싶어해서... 그래서 제가 승인했습니다.》

《네가 승인을 했다, 하하... 그러니 장본인은 우리 남이었구나.》

《예... 접니다.》 하고 남이가 슬쩍 원수님의 등뒤로 얼굴을 숨기자 방안에는 웃음꽃이 확 피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도 서로 마주보며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어른들의 웃음이 잦아들무렵 남이가 빠끔히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이자 학교갔을 때 형은 운동장 한구석에서 가만히 구경만 하고있었습니다.》

《이번에도 형의 편역만 드는걸 보니 형제사이가 보통이 아닌걸.》

원수님께서는 남이의 동글납작한 얼굴을 사랑스레 다독여주시고나서 혁이에게 물으시었습니다.

《그래 동무들이 무척 반가와했겠구나.》

《네, 새집들이를 한 기쁨이랑 나누면서 기세들이 올라 야단입니다. 앞으로 경기에서 꼭 창전거리에서 사는 자랑을 펼치자고 말입니다.》

《음, 창전거리에서 사는 자랑을 펼친다!... 그래 자신있느냐?》

혁이가 선뜻 입을 열지 못하자 이번에도 남이가 장한듯이 냉큼 나섰습니다.

《원수님, 우리 형은 축구학급에서 속도가 제일 빨라 1등으로 꼽힙니다. 앞으론 학교에서만 아니라 우리 나라적으로 1등이고 그다음엔 또...》

갑자기 남이의 자랑주머니가 잦아들었습

니다. 형의 부름떠진 눈길에 그 애의 속을 짚끔하게 했던것입니다.

원수님께서는 그러는 두형제를 재미있게 여겨보시다가 다정히 량옆에 껴안으시었습니다.

《허허... 남이 마음속엔 온통 형에 대한 자랑뿐이구나. 그게 더 내 마음에 드는구나. 자, 그럼 어디 너희들 방을 구경해볼까?》

남이가 얼른 원수님의 손을 꼭 잡고 왼쪽으로 꺾인 복도로 이끌었습니다.

복도를 마주한 방이 그 애들의 방이었습니다. 그리 크지 않은 두개의 방이 칸막이로 되어있었는데 웃쪽은 공부방이고 아래칸은 잠자는 방이었습니다.

원수님께서는 방안을 정겹게 둘러보시다가 책장과 책상이 나란히 놓인 공부방으로 올라가시었습니다.

순간 남이는 금시 자라목이 되어 목을 움츠러뜨렸습니다. 아까 학교에 간 형을 기다리며 그림련습을 하느라 펼쳐놓았던 책이 그대로 놓여있었던것입니다.

혁이 역시 가슴이 한줄만 해서 동생을 민망스레 흘겨보았습니다.

(그만큼 말해주었는데 저 망신스러운걸 또 꺼내놓았구나.)

동생의 그림종이책에서 살고있는 기러기 형제가 눈앞에서 막 너울거리며 돌아가는듯했습니다. 그림재간이 없어가지고도 찍하면 그림종이책을 꺼내드는 동생입니다. 그래 한번은 이렇게 물은적이 있었습니다.

《남이야, 너 앞으로 커서 뭐가 될래?》

《아직 몰라. 형이 대줘. 난 뭘해야 할까?》

《그건 제가 하고싶어하는거지 형이 하라해서 되는건 아니야. 형처럼 축구에 취미가 있다면가...》

《난 그림에 취미가 있어.》

《앗하하...》

《왜 웃니?》

《신통히 못하는걸 하겠다고 하니까 웃음이 안 나올수가 있어? 다른거라면 몰라도 너 그림만은 안돼. 그러다 그림종이책이 기러기떼에 올라앉아 훌 날아가버리지 않나 봐라.》

그런데 혁이가 비웃던 그림종이책을 원수님께서 보시게 될줄이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원수님께서는 여전히 환한 웃음속에 한장 한장 그림종이책을 번져가고계셨습니다. 방

금 그리다만 그림을 보시자 남이를 옆으로 바짝 꼬당겨세우시였습니다.

《남이가 아직 꽃을 그리는 법을 잘 모르는 것 같구나.》

《좋은 일을 하는 동무의 모습》이라는 제목의 그림이었는데 학교건물은 그런대로 비슷해보였지만 정원의 꽃송이들은 꽃잎의 모양이 저마끔인게 마치도 인형애기의 손바닥을 그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원수님께서는 남이 손에 연필을 쥐여주시고 그우를 텃감아주시였습니다.

《꽃은 처음에 안에 있는 씨앗주머니부터 이렇게… 이렇게 그려야 한다. 그다음 돌려가며 잎을 그려야 해. 간격을 맞춰서… 마감에 이렇게 꽃술을 그려넣고… 봐라, 고운 꽃이 되지 않았느냐?》

《네. …》

새로 그린 꽃송이를 들여다보는 남이의 얼굴에 행복의 웃음이 남실남실 피어올랐습니다. 혁이도 차근차근 가르쳐주시는 원수님의 인자하신 모습에 가슴이 사뭇 달아올라 동생이 그린 꽃을 희한해서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번엔 네 힘으로 한번 다시 그려보아라.》

원수님께서 의자에 앉혀주시자 남이는 방금 가르쳐주신대로 열심히 꽃송이를 그려나갔습니다. 남이의 그림을 이윽히 들여다보시던 원수님께서 아버지, 어머니를 향해 만족한 웃음을 지으시였습니다.

두손을 맞잡고 쑥스러운 표정으로 서있던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씀올렸습니다.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제가 애들의 학습방조에 조금만 시간을 바쳤어도 애의 그림수준이 이렇게까진…》

원수님께서 더 말을 말라는 듯 가볍게 손을 저으시였습니다. 그러시고는 애들의 침대를 구석구석 일일이 짚어보시고나서 그우에 스스럼없이 앉으시였습니다.

《이만하면 해면깔개가 맞춤형에 애들이 편안히 잘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혁이는 형이니까 이 바깥쪽에 눕겠구나. 동생은 안쪽에서 자고…》

다심한 그 물으심에 혁이가 그렇다고 대답올리는데 어느새 꽃을 다 그린 남이가 코날개를 발름거리며 원수님앞에 나섰습니다.

그림종이책을 들여다보시던 원수님께서 잘그렸다고 칭찬하시며 그 애를 안아 자신의 무릎우에 앉히시였습니다.

어머니가 남이더러 일어나라고 눈짓을 해

보였으나 그 애는 빼기듯 아래입술을 슬쩍 내밀어보이고는 더 깊이 원수님의 품에 파고들었습니다.

한가정의 따뜻한 정이 함뿍 흘러넘치는 순간이었습니다.

남이가 어려움도 잊고 말씀드렸습니다.

《원수님, 우리 형 이사온 첫날밤에 침대에서 떨어졌었습니다. 경기뎨 꼴을 못 넣고 꿈속에서 〈슛, 풀잉〉 하다가…》

형의 눈총에 이번에도 남이는 말꼬리를 감추고말았습니다.

《저런…》 하시며 원수님께서는 침대와 방바닥사이를 세심히 가늠해보시였습니다.

《침대가 낮으니 그렇지 상할번 했구나. 헌데 꿈속에서도 〈슛, 풀잉!〉 을 했단 말이지. 혁이야, 그게 정말이야?》

혁이는 고개를 떨구며 기여드는 소리를 했습니다.

생각할수록 아쉽고 분했습니다. 그날 있는 과외체육학교 애들과의 경기에서 다문한꼴이라도 넣었대도 이렇게는 부끄럽고 창피하지 않았을것입니다.

원수님께서는 혁이의 수그린 머리에 다정히 손을 얹으시였습니다.

《네가 진짜 축구라면 오금을 못쓰는구나. 그런 정열이면 앞으로 유명한 축구선수가 될수 있다. 가슴에 품은 희망대로 세계적인 축구선수, 조선의 10번이 될수 있을제다.》

《네?》

혁이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10번이라니? 원수님께서 그걸 어떻게…)

원수님께서 웃음속에 던지시 물으시였습니다.

《어때, 내가 우리 혁이의 꿈을 바로 맞혔느냐?》

《야, 맞습니다. 원수님!》 하며 남이가 기뻐 어쩔줄 몰라했습니다.

《우리 형은 이담에 꼭 뽀레나 마라도나 처럼 세계적인 축구명수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그래, 세계적인 축구명수들은 거의 나가 10번을 단 중앙공격수들이었으니까. 그래서 번호도 10번을 달았을게고…》

혁이의 검실한 눈망울이 놀라움에 한껏 커져갔습니다. 덤불속에 숨겨진 샘물마냥 가슴속 깊은 곳에 간직된 자기의 희망을 대번에 알아맞히시는 원수님의 말씀에 가슴은 흥분으로 마구 일렁이였습니다.

그 심정을 들여다보신듯 원수님께서 환희 웃으시며 맞은편 방들을 가리켜보이셨습니다.

《저 큰방에 걸려있는 혁이의 사진이 나에게 모든걸 알려주었지. 앞에 10번을 단 운동복을 입고 찍은 사진 말이다. 사진말에 10번이란 글을 크게 새겨넣은걸 보니 의미가 더 깊어보이더구나. 그래서 큰 꿈을 안고 자라는 혁이를 만나보고싶어한거다.》

《아버지 원수님!》

혁이는 뜨거움에 목메인 부름을 터쳤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한순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언제 그랬냐싶게 혁이의 눈길은 방바닥으로 향해졌습니다. 《히야!》하고 연신 감란을 빼물던 남이가 의아해서 형을 쳐다봅니다.

마침내 혁이는 단숨을 혁 삼키며 가까스로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헌데 전...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그 건 허황한 꿈이었다는걸...》

퍼그나 놀라신 기색이 원수님의 밝으신 안색을 흐리게 했습니다. 뜻밖에 듣게 되신 혁이의 주눅든 말마디들이 원수님의 눈빛을 깊은 사색속에 잠기게 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느냐?》

혁이는 가빠오르는 숨결을 애써 누르며 문어구에 서있는 아버지, 어머니를 흘끔 결눈질해보았습니다. 저르기 긴장해진 아버지와 어머니의 눈길이 그의 얼굴에 못박혔습니다.

아직은 집안사람들도 모르는 혁이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 시각 혁이는 원수님앞에서 모든것을 터놓고싶었습니다.

자기의 희망을 귀중히 여겨 주시는 원수님앞에 마음속 그늘을 조금도 숨기고 싶

지 않았습니다.

원수님께서 보아주신 큰방에 걸려있는 혁이의 독사진, 그 사진을 찍을 때까지만 해도 혁이는 금시 하늘의 별이라도 팔듯 한 기분이었습니다.

중학교에 올라와 축구학급에 들어간지 몇달 안되어 팀의 오른쪽날개로 뽑힌 혁이입니다. 게다가 축구소조선생님 역시 부풀대로 부푼 혁이의 가슴에 자신심을 한가득 불어넣어주었습니다.

《확실히 넌 판매들보다 발전이 빨라. 그런 속도면 몇년안에 축구전문가들이 탐내는 선수가 될수 있어.》

혁이는 밤늦도록 훈련에 훈련을 거듭했습니다. 학교의 상급생형님들의 팀에도 당당히 속해 경기에 참가하는 때도 드문했습니다. 만나는 애들마다 혁이의 운동복에 새겨진 10번을 이름처럼 불러주었고 경기때면 구경왔던 학부형들까지도 그의 공다루는 솜씨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나날 혁이의 가슴 한복판에 생각만 해도 마음 울렁이게 하는 남모르는 희망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조선의 10번이 될테다. 우리 나라를 빛내이는 세계적인 축구선수가 될테다!)

하루는 그 마음을 아버지와 어머니앞에 척 열어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웃음속에 통을 놓았습니다.

《어이구, 개천에서 룡이 난다더니 로동자의 집에서 세계적인 축구선수라, 호호... 어마어마해도 듣기는 좋구나.》

《쳇, 내가 그렇게 못될줄 알아요?》

혁이의 불부는 소리에 아버지의 핀잔이 뒤따랐습니다.

《사람이 일도 치기 전에 소리부터 높아선 큰일을 못한다. 우선 학교에서, 다음엔 구역, 시급에서... 이렇게 한단한단 밝아오르기 위한 노력부터 해야 실속있는 꿈이 되는거다.》

물론 아버지의 그 말이 그르는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왜서인지 마음에 차지 않았습니다.

(아니, 사람은 우선 목표부터 크게 세우고 봐야 해.)

다음날로 혁이네 집벽에 커다란 독사진이 나붙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저녁으로 그 사진을 들여다보며 자기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훈련의 날과 날을 맞고보았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하늘가로 내려치던 혁이의 꿈이 그만 저도 모르는 새 나래를 접히우게 될줄이야....

그것은 얼마전에 있던 구역과의체육학교팀과의 경기때부터였습니다. 체육을 전문으로 하는 학교애들과의 축구경기는 혁이네에게 있어 처음이라고 할수 있었습니다.

학교소조에서는 선수들의 경기담을 키워주기 위하여 이웃 중학교들과만이 아니라 과외체육학교팀과도 대담하게 경기를 조직했던것입니다. 그런데 그 경기에서 혁이는 자기의 솜씨를 크게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상대편의 공빼몰기기술이 압도적인데다 속도가 빠른 혁이한테 상대측선수가 찰지마리마냥 검질기게 붙어다니다니니 꼴 한번 넣어보지 못한채 3 대 0이라는 점수차이로 지고말았던것입니다. 그후 두번째 경기에서도 혁이네는 패전의 쓴맛을 보았습니다. 한데 그보다 더 혁이를 실망케 한것은 기막힌 차넣기기술을 보여주어 혁이의 찍 벌어진 입을 한동안이나 다물지 못하게 한 상대

편의 중앙공격수가 자기보다 아래학년이라는 사실이였습니다.

키가 어긋비슷해 그렇지 여러 애들이 동생별이 된다는것을 알았을 때 혁이는 기껏 부풀었던 가슴이 순간에 허우룩해났습니다.

《차, 축구를 배운지 이제 겨우 2년째라구? 아직 풋내기에 풋내기로구나. 나도 소학교때부터 시작했지만 전문가들의 눈으로 보면 늦둥이나 다름없다고 할수 있지. 과외체육학교뿐이겠니? 체육단들에서도 벌써 앞이 쪽 내다보이는 애들은 어릴 때부터 체격 빨아올린단 말이야. 그렇다고 맥을 놓을건 없어. 꼭 전문축구선수가 되어야 한다는 법은 없으니까.》

병원에서 함께 입원생활을 한 어느 한 체육단에서 축구선수로 있는 형님이 해준 말입니다.

그 말은 다시금 혁이의 가슴에 뿌리내린 소중한 희망을 마구 흔들어놓는듯 했습니다.

그러니 나의 꿈은 하늘의 별과 같은것이 아닐가? 하늘의 별을 팔수 없듯이 이룰수 없는 허황한 꿈이 아닐가 하는데로 마음은 서서히 기울어져갔습니다.

#### 4

《음...》

원수님께서서는 깊어지는 생각을 이 한마디에 담으시며 천천히 큰방으로 건너가시였습니다. 애들과 어른들이 뒤따랐습니다.

큰방의 한쪽벽에 붙어있는 사진앞에 이르시자 원수님께서서는 두손을 허리에 얹으시고 어딘가 저 멀리를 바라보며 싱그레 웃고있는 혁이의 얼굴을 들여다보시였습니다.

축구에 남달리 희망을 품었던 혁이입니다. 지금은 학교의 운동장을 달리고있지만 마음속엔 세계를 안고있는 아이였습니다. 그 꿈이 소중한고 대견하시여 원수님께서서는 혁이를 무척 보고싶어하신텐것입니다.

원수님께서서는 한참이나 사진을 들여다보시다가 혁이에게 은근한 웃음을 보내시였습니다.

《허, 사내라는데 고쫘한 일에 맥을 놓다니. 이제보니 마음에도 상처가 생겼는걸.》

남이가 형을 향해 코살을 찡긋했습니다. 그래가지고도 결핍하면 이 동생을 비웃어! 하는 뜻이였습니다.

허나 다음순간 힘주어 하시는 원수님의 말씀에 호들짝 어깨를 떨었습니다.

《아니, 혁이는 결코 저 하늘의 별을 팔 수 없는 애가 아니야. 난 혁이를 더 믿게 된다.》

《?》

혁이의 두눈에 의혹의 불꽃이 확 튀었습니다.

원수님께서는 그 눈빛에 어린 의혹을 가셔주듯 나직하나 친근하신 음성으로 계속하시었습니다.

《혁이가 자신을 알게 됐거든. 무엇보다 그게 중요한거다. 사람은 자기를 알면 자각하게 되고 자각하면 그만큼 배가의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 법이다. 혁이야, 그렇지 않니?》

혁이의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한숨만 내쉬며 주저앉아버리다싶이 한 자신을 탓할 대신 믿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원수님의 그 사랑에 그만 몸둘바를 몰랐습니다.

원수님께서는 혁이의 두볼을 두손으로 포근히 감싸안으시었습니다.

《사람은 일단 결심을 품은 이상 주저를 몰라야 한다. 그 어떤 난관이 겹쌓여도 그것을 박차고 일어나는 강의한 정신과 함께 오늘은 비록 내가 떨어졌어도 래일엔 반드시 앞선다는 신심을 가지고 해나가면 혁이의 꿈은 얼마든지 실현될수 있는거야.》

원수님께서는 눈빛이 초롱초롱해서 귀담아듣고있는 남이와 혁이를 사랑스레 굽어보시다가 그 애들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로 시선을 보내시었습니다.

《너희들의 부모님이 바로 그런 정신으로 오늘과 같이 사회주의강성국가를 일떠세우기 위해 헌신하고있지 않느냐. 그 정신을 본받아 이 나라를 빛내이는 훌륭한 축구선수가 되어야 한다.》

원수님의 간곡한 말썬은 그대로 혁이의 가슴에 크나큰 힘으로 흘러들고있었습니다.

맥을 놓고 주저앉을번 한 혁이한테 더 크고 억센 희망의 날개를 달아주고있었습니다.

《아버지원수님!》

혁이는 더해지는 흥분과 충동으로 가슴을 들먹이며 원수님을 우러렀습니다.

원수님께서는 만족하게 웃으시며 혁이를 정답아 보시었습니다.

평범한 노동자의 집안에서 이런 큰 꿈이 자라고있는것을 무엇보다 기쁘게 보신 원수님이시었습니다. 그 꿈을 안고자라는 아이가 보고싶으시여 귀중한 시간을 바치시

며 그 애를 기다려주신 그이이시었습니다.

이윽고 원수님께서 함께 온 일군에게 조용히 이리시었습니다.

《참, 내가 새집들이기념으로 좀 준비해 가지고온것이 있지.》

원수님께서서는 가지고온 선물을 그 애들에게 안겨주시었습니다.

새집들이를 기념으로 성냥과 여러가지 부엌세간들... 그중에서도 애들의 마음을 기쁘게 한것은 한아름씩 안고도 남을 재미있는 책들이었습니다.

원수님께서는 행복에 겨워 저마끔 책들을 뽑아보는 혁이와 남이에게 이렇게 차근차근 알려주시었습니다.

《여기에 우리 나라와 세계를 알게 하는 책들이 많이 들어있다. 우선 많이 읽고 배워야 해. 알아야 더 큰 꿈을 자래울수 있고 세계를 알수 있다. 조국을 빛내는 축구선수도 될수 있구.》

혁이는 순간에 가슴이 확 넓어지는듯 했습니다. 세계의 한복판에 우리의 공화국기를 휘날리는 자기의 모습이 눈앞에 우뚝이 안겨오며 가슴에 새로운 신심과 배짱이 막 용솟음쳤습니다.

《원수님, 꼭 우리 나라를 빛내이는 축구 선수가 되겠습니다.》

《옳다, 그래야 하구말구.》

원수님께서는 혁이의 어깨를 크게 두드려 주시며 계속하시었습니다.

《세계를 향해 내딛는 오늘의 선군조선에서 너희들은 그런 꿈을 안고 자라야 하구말구. 내 혁이의 성공을 지켜보겠다. 그리고 약속하자, 그때 가서 나에게 편지를 써라.》

《원수님, 그 약속을 꼭... 꼭...》

혁이는 더 말을 잊지 못한채 한없이 넓고 따뜻한 그이의 품에 와락 얼굴을 묻었습니다.

아, 세상에 이보다 더 뜨거운 약속이 있을까? 세상에 이보다 더 큰 믿음의 약속이 또 있을까?

뒤쪽에서 감격에 젖은 가느다란 흐느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걱정과 흥분으로 높아진 숨결소리가 방안에 차넘쳤습니다.

원수님께서는 사색이 그윽히 흐르는 시선으로 혁이의 부모들과 일군들을 돌아보시었습니다.

《지금 나라의 그 어디를 가보아도 체육 열기가 대단합니다. 그 열기속에서 우리의 미더운 체육선수들이 국제경기들에 나

가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군의 우리 조국을 세계우에 우뚝 올려세우자면 오늘의 체육열기에 만족할수 없습니다. 더 세찬 체육열풍이 불어치게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당에서는 이번엔 일련의 조치들을 취하려고 하는데 오늘 이렇게 혁이를 만나고보니 우리의 의도가 정말 옳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온 나라에 뚫어번질 체육열풍속에서 혁이와 같은 애들의 희망은 더 크게, 더 빨리 꽃피날수 있을것입니다.»

순간 방안에는 걱정의 파도가 세차게 일렁이였습니다. 온 나라에 타오를 체육열풍, 그 열풍이 바로 혁이네 집에서부터 불어오는듯싶었습니다.

원수님께서 잠시 동안을 두시였다가 혁이 아버지에게 시선을 멈추시였습니다.

《참, 혁이 아버지도 해군에 복무할 때 수영선수로 손꼽혔다고 하는데 새로 선 야외 물놀이장이나 운동센터들에 가족들과 함께 가서 수영도 하고 운동도 하면서 휴식의 한때를 즐길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의 뜻을 받들어 체육열풍의 맨 앞장에 우리 가정에서 하겠습니다.》

원수님께서서는 힘찬 대답을 올리는 혁이 아버지를 미덥게 보시였습니다.

아까부터 마주친 손뼉을 가슴에 대고 형을 부럽게 쳐다보는 남이의 얼굴에도 원수님의 정어린 시선이 봄볕처럼 닿았습니다.

《남이도 앞으로 형처럼 그런 큰 꿈을 안고 자라야 한다.》

남이는 웬일인지 선뜻 대답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무엇인가 망설이듯 입술을 오무리고 두눈만 반짝거립니다. 그러다 마침내 능금처럼 빨갛게 익어가는 얼굴을 반듯이 쳐들었습니다.

《원수님, 난... 난 미술가가 되고싶습니다.》

엄청난 그 대답에 혁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한테서도 그림을 장난처럼 여긴다며 늘쌍 꾸지람을 듣곤 하던 애가 원수님앞에서까지?!

아버지와 어머니도 면구스러워 황황히 얼굴을 돌려버립니다.

그러나 원수님께서서는 못내 기쁘신듯 남이의 불을 다독여주시였습니다.

《그래, 될수 있구말구. 아까 네 그림들을 보면서 나도 생각된바가 있었다. 아

직 대상물을 정확하게 그리는 재간은 부족해도 학교와 정원을 제법 거리감이 나게 그렸더구나. 대체로 소학교 애들이 구도를 잘 잡지 못하는데 남이한테 그게 장점이지... 남이 어머니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머니는 참고참았던 눈물을 끝내 흘리고야말았습니다.

어머니인 자기조차 나무람만 하였던 아들애의 그림장난에서 귀중한 싹을 발견하시고 정을 담아 희망을 꽃피주시는 원수님이시였습니다.

《이 좋은 새집에서 사는것도 꿈만 같은데... 이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큰 꿈도 안겨주시니 정말...》

어머니는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남이가 원수님을 우러러 씩씩하게 대답드렸습니다.

《원수님, 저도 조국을 빛내이는 미술가가 되겠습니다.》

《히, 미술가! 남이의 꿈도 대단해. 그때, 너희들은 무슨 일을 하든 이거-》 하시며 원수님께서서는 엄지손가락을 내드시였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해. 그럼 우리 남이의 그림도 내 꼭 보아주마.》

두형제의 머리를 연신 쓰다듬어주시며 원수님께서서는 태양과도 같은 웃음을 지으시였습니다.

《오늘은 정말 좋은 날이다. 새집들이한 혁이네를 알게 된것도 기쁘지만 너희들과 한 약속이 내 마음을 더없이 기쁘게 하는구나.》

원수님께서서는 더없이 만족해하시며 혁이네 집을 나서시였습니다. 이 세상 가장 큰 사랑과 믿음이 담긴 소중한 약속을 남기시고 원수님께서서는 불밝은 창전거리를 떠나시였습니다.

《형, 내가 정말 미술가가 될수 있을까?》

불빛 현란한 창전거리를 내다보며 두형제가 나누는 말입니다.

《그럼. 꼭 돼야 해. 원수님의 품속에서 우린 못해낼 일이 없어!》

혁이의 귀전에 원수님의 우렁우렁한 음성이 메아리가 되어 계속 들려옵니다.

이 세상 가장 큰 꿈을 지닌 혁이와 남이, 이 세상 가장 큰 믿음을 받아안은 두형제를 축복하듯 창전거리는 더더욱 황홀한 불야경을 펼쳐갑니다.